

# 국 외 연 수 결 과 보 고 서

##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과정 -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수개요 .....                           | 1  |
| 2. 주요 방문기관 및 소개 .....                   | 2  |
| 3. 여행자 현황 .....                         | 3  |
| II. 청년지원 분야 .....                       | 4  |
| 1. 우리나라 청년 실업 .....                     | 4  |
| 2. 독일의 교육제도 일반 .....                    | 4  |
| 3. 독일과 전라남도의 청년정책 시사점 .....             | 5  |
| III. 일자리 창출 분야 .....                    | 6  |
| 1. 헤센주 풀다(Fulda)市 농업농촌 정책 .....         | 6  |
| 2. 독일의 직업교육제도-이원화 제도(Dual System) ..... | 8  |
| 3. 시사점 .....                            | 9  |
| IV. 귀농 · 귀촌 · 귀어 분야 .....               | 10 |
| 1. 쾨베르거 교육농장과 전라남도 녹색농촌체험마을 .....       | 10 |
| 2. 풀다(Fulda)市 농업협회 .....                | 12 |
| 3. 시사점 .....                            | 13 |
| V. 결론 .....                             | 15 |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독일 국외 연수 결과

## I. 서론

### 1. 연수개요

#### 가. 목적

-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기치로 내걸고 일자리 정책, 청년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지 선진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
-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17. 6월 기준 10.5%'를 기록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23%를 넘어 4명 중 1명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이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타개할 돌파구는 어떤 것인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청년지원정책, 일자리 창출 모델, 귀농 귀촌귀어 실효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나. 연수기간 : 2017. 9. 20. ~ 9. 27. (5박 7일)

다. 대상국가 : 독일



## 2. 주요 방문기관

### 가. 주요일정

| 방문일자      | 주 요 일 정                                                                                                          |
|-----------|------------------------------------------------------------------------------------------------------------------|
| 9. 20.(수) |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
| 9. 21.(목) | □ 아우토 5000 메르세데스 본사 센터(일자리 창출)                                                                                   |
| 9. 22.(금) | □ 공식방문 : HOCHTAUNUSSCHULE 직업학교<br>□ 공식방문 : BIOLAND-HOF SCHONBERGER(친베르거 교육농장)<br>□ 공식방문 : KBV FULDA-HUNFELD 농업협회 |
| 9. 23.(토) | □ 쾰른 루드비히 미술관(내부견학)<br>□ 독일 최고의 명소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쾰른대성당(내부)<br>□ 쾰른의 패션명소 호에거리                                        |
| 9. 24.(일) | □ 요정의 바위라 불리는 로렐라이 언덕<br>□ 철새골목이라 불리는 드로셀가세 & 라인강변 & 포도밭<br>□ 케이블카 탑승체험<br>□ 에버바흐 수도원 내부 견학                      |
| 9. 25.(월) | □ 하이델베르크성(내부), 산책로 철학자의 길<br>□ 알테 브뤼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카를 테오도르다리<br>□ 구 시청사, 뢰머광장, 대성당 등 시내견학                          |

### 나. 호프타우누스쿨레 직업학교

- 위 치 : 프랑크푸르트 오버아우젤
- 구 성 : 일반 고등학교 + 직업훈련 전문직업학교
- 교육과정 : 청소년 대상, 일반교육 및 직업훈련(2년간)
  - 일반교육과목 : 독일어, 수학, 정치 및 비즈니스, 종교와 윤리
  - 직 업 훈 련 :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 인턴쉽 제도 : 인턴쉽과정 160시간

### 다. 친베르거 교육농장

- 위 치 : 헤센주 풀다
- 농 장 주 : 귀농인, 바이오유기농업 선구자
- 사업내용 : 교육농장, 농촌체험 관광지, 돼지·말·염소 등 가축 사육
  - 귀농의 대표적 성공사례, 염소치즈 생산 및 개발에 심혈

## 라. 헤센주 풀다(Fulda)市 농업협회

- 위 치 : 헤센주 풀다(프랑크푸르트에서 동북쪽 약 100km)
- 회 원 수 : 약 27,000명
- 사업내용 : 농업인·농촌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정부 활동 전개
  - 국내외 농업인 협의체 구성 운영 및 협력, 농업정책개발 건의 등

## 3. 여행자 현황

|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
| 계  |      | 18명 |     |    |
| 1  | 전라남도 | 5급  | 권용선 |    |
| 2  | 전라남도 | 5급  | 서순철 |    |
| 3  | 전라남도 | 5급  | 양정일 |    |
| 4  | 전라남도 | 6급  | 나은경 |    |
| 5  | 전라남도 | 7급  | 이원기 |    |
| 6  | 순천시  | 6급  | 최금심 |    |
| 7  | 나주시  | 6급  | 백승준 |    |
| 8  | 광양시  | 6급  | 이현성 |    |
| 9  | 담양군  | 6급  | 이근신 |    |
| 10 | 곡성군  | 7급  | 손선미 |    |
| 11 | 구례군  | 6급  | 류효숙 |    |
| 12 | 보성군  | 6급  | 이상철 |    |
| 13 | 화순군  | 6급  | 남영미 |    |
| 14 | 화순군  | 7급  | 송원진 |    |
| 15 | 무안군  | 지도사 | 김미승 |    |
| 16 | 영광군  | 7급  | 정진수 |    |
| 17 | 진도군  | 지도사 | 박성철 |    |
| 18 | 전라남도 | 7급  | 박민철 |    |

## II. 청년지원 분야

### 1. 우리나라 청년실업

- 고용현황 :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7% 낮은 수준으로 경제 국면을 유지, 실업률은 1% 감소됨
- 취업구조 : 농림어업 중심의 일자리 구조로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역외유출 : 다양한 경로로 역외 유출이 발생되나 규모는 감소 추세
- 미스매치 : 청년들의 희망직종과 실제 일자리 간에 불일치 현상으로 청년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이 동시 발생

### 2. 독일교육제도 일반

- 16개 대부분의 州에서 총 12년제(초등 4년 + 중등 8년) 시행
  - ※ 과거와 같이 총 13년제(중등 9년)로 회기한 학교도 일부 있으며, 독일연방정부의 성격상 교육정책 및 제도는 각 주정부 소관
- 초등교육 이후 중등교육은 인문교육(김나지엄)과 실업교육(레알슐레 등)로 나뉘며, 실업교육 과정이수자 대부분이 직업학교 진학
  - ※ 초등교육 이후 학교 성적 및 선생님의 의견 반영해 인문계학교와 실업학교 진학으로 나눔 (초등학교 4년간 담임 선생님 동일)
- 초등학교 졸업 후 김나지엄 진학률 : 40~50%
  - ※ 김나지움 → 대학진학 목표
  - ※ 레알슐레 → 특성화 학교, 10학년 졸업
  - ※ 하웁트슐레 → 노동일 목적, 9학년 졸업
  - ※ 개잡트슐레 : 인문계+실업계 합친 교육
- 아우스빌둥(Ausbildung) : ‘이원화된 직업교육’을 가리킴
  - ※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필요한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현장과 학교로 이원화된 직업교육을 말하며, 과거 도시마다 한곳씩 설치되었던 반면, 점차 직업 세분화에 따라 직업학교도 세분화 됨..
  - ex) 인근 지역의 롤스로이스도 호프타운스 직업학교와 연계하여 직업교육 실시
  - 자동차 회사에서 1명이라도 필요하면 아우스빌둥을 제공해주며 기술, 금속, IT 또한 직업학교 통해 교육 시행
  - 헤센주 경우 인근에 농업학교가 전무하여, 호호타운스직업학교를 통해 농업 분야 직업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나, 관내 부동산 가격이 높아, 헤센주 외곽에 거주하면서 주 2회 8~9시간 교육받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기도 함
  - 농업학교의 경우 18세 이상의 학생들과 일반인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다름

- 독일식 교육은 ‘아이를 강하게 키우자!’이며, 질문은 돈이 들지 않으며 질문하지 않으면 관심이 줄어든다’ 라고 교육시킴
- ※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질문하지 않는데) 도와주면 간섭이라고 생각함
- 유치원은 개인부담이며,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가 다름

### 3. 독일과 전라남도의 청년정책 시사점

#### 가. 독일의 직업학교

- 초등 4년간 담임선생님의 집중 관찰을 통해 학생의 진로가 조기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0~8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률이 50%에 미치지 않음
- 독일은 대학에 진학 후, 졸업정원제로 약 30%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초등학교 졸업생의 50%가 실업계 학교에 진학하는 점 등 꼭 대학까지 않아도 직업학교에 진학해 기업체와 학교가 각각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졸업 후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고 사회생활이 가능함
- 국내 마이스터고 혹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직업현장교육의 경우, 학교가 직업교육을 하고 학생과 산업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의 직업교육은 견습생을 양성하는 현장, 즉 산업현장이 교육주체가 되어 이론교육을 위한 직업학교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 향후 우리 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일식 직업학교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학교현장을 교육주체로 한 직업교육 대신 산업현장을 교육주체로 한 명실상부한 ‘독일식 직업교육’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나. 헤센주 풀다(Fulda)市 농업인협회를 통해 본 청년정책의 청년 참여율 제고 방향

- 독일 대표농가로 구성된 농업인협회를 통해 농업정책을 전달하는 등 협회의 역할이 크다. 실제로 헤센주 풀다지역의 젊은 층 농업인구가 20%정도 됨  
⇔ 전남도 젊은층 10% 정도
-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은 의미가 없다. 현재 우리도에서도 청년층이 참여해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청년단체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가 시급함

#### 다. 독일의 청년실업정책에의 연계 및 활용방향

- 독일은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노동계를 중심으로 직업훈련분담금의 법제화를 추진했는데, 2004년 6월 16일, 훈련분담금의 법제화 대신에 경제계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 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직업훈련협약(Ausbildungspakt)을 연방정부와 경제 4단체가 체결했다. 직업훈련협약에 따르면, 경제계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3만개의 새로운 훈련자리와 2만 5000개의 초급훈련자리(Einstiegsqualifikation)를 제공하며, 연방정부는 정부 내 훈련자리의 20%를 추가로 제공(※ 독일의 고용정책 독일 개황, 2011. 외교부)
- 호프타우누스출레 직업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사점은, 우리도에서 직업교육 제도의 활착과 동시에 현재까지의 일정군의 직업군 양성이 아니라, 많은 기업과의 직업훈련협약을 통한 다양한 직업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

### III. 일자리 창출 분야

#### 1. 헤센주 풀다(Fulda)市 농업농촌 정책 - 농촌 생활환경

- 독일 농업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이고,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이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농가 역시 각종 농업지원금과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농·축산물 가공(빵·치즈·소시지 등), 농가민박, 바이오가스 생산 등의 부업으로 소득을 더 충당한다. 독일 농민의 한 해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근접한다고 한다. 반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한 해 소득은 도시 가구 소득의 62.2%에 그친다.(농촌진흥청<2015>)
- 독일 농촌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농촌과 농민을 대하는 독일 사회의 태도라 생각한다. 농촌이 깨끗하고, 경관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도시 근로자와 비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농촌을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독일 연수 전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독일 정부가 농촌을 ‘사람이 살기 좋은 곳’만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독일에선 산골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풍경과 만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방문한 쾰른 교육농장도, 민박을 했던 마을도 도시보다 깨끗했다. 농촌이라기에 무색할 정도였다.

- 지금의 독일 농촌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는 독일 연방정부가 정리한 홍보용 자료인 **농업의 10가지 기능**을 접하게 되면서 많이 해소되었다.

하나,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한다.  
 둘, 농업은 우리 국민산업의 기반이 된다.  
 셋,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넷, 농업은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  
 다섯, 농업은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한다.  
 여섯,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  
 일곱, 농업은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준다.  
 여덟, 농업은 값 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  
 아홉,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한다.  
 열,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 <출처:오마이뉴스>

- 독일 정부는 “농업은 국토 경관 관리, 농촌 공간 보존 등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이 낮아서 농민이 (농촌을) 떠나면 우리의 값비싼 문화 경관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독일 정부의 결론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경종이다.
- 독일 헤센주 풀다(Fulda)시 농업인협회를 방문했을 때 들었던 생각처럼 조합의 역할은 사실상 한국의 지역농협의 역할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독일에서는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하고, 한국은 사실상 행정이 주도하는 실정이며, 사업성과의 수혜자가 독일에서는 농민에게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 또한, 농촌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독일의 농업농촌 인구감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독일의 경우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방안을 추진하기보다 **농촌지역의 삶의 공간**을 도시의 생활환경수준까지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 우리나라가 농업농촌 인구의 감소나 소득의 저하 등의 문제점 개선을 **농업**에서 찾고자 하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이 농업 농촌을 유지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으로 남는다.

- 독일과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의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독일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예처럼 전남도 또는 시군차원의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농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되다 보면 지역에서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향후 전남도의 농업 농촌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비전수립 (민관 협력체계) 및 지역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붓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다.

## 2. 독일의 직업교육제도-이원화 제도(Dual System)

- 독일의 전형적인 직업교육제도인 이원화 제도(Dual System)는 학생이 3일 내지 4일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고, 나머지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이 끝나면,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받는다. 기업은 이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과 훈련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훈련생은 자격증을 획득하고, 수당을 받는 이점이 있다. 훈련생 상당수가 훈련을 받은 기업에 남기 때문에 기업은 훈련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등 높은 훈련 참여율을 보이게 된다.(방문 직원학교 교장 설명 요약)
- 이러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독일의 사회, 경제, 교육제도에 잘 정착했고 독일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로 간주되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높은 신뢰를 얻는 것은 고용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최근에 EU에서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독일의 직업훈련 제도를 다른 나라의 직업교육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참고 모델로 제안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업주 단체는 훈련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검정함과 더불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국의 어떠한 기업에서 훈련을 받아도 직업학교 학생의 자질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하며, 훈련 내용의 공통성을 확보하게 된다.  
 단순히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모든 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사업주 단체가 장래 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데 직접 나서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4년 5월 부분 발췌)

-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업과 참여하는 학생이 주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연방정부, 주정부, 사업주 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 모두 직업훈련체계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독일 대기업의 높은 참여율은 한국에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 3. 시사점

-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는 노사정의 협력관계가 체계의 근간이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직업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과 같은 노사정의 협력관계가 선결 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은 기업의 기능인력 수요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해 전남도가 우위를 보이는 업종에 대한 인턴십의 확대,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직업학교 방문사진

## IV. 귀농 · 귀촌 · 귀어 분야

### 1. 원베르거 교육농장과 전라남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 가. 원베르거 교육농장

- 프랑크푸르트 교사출신 3명이 1982년 귀농하여 바이오농장을 만들고 헤센주 농업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며 3년마다 갱신함
- 연간 25~30개 과정 1,500명 정도 교육, 교육 운영비는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음
- 농가의 주된 수입원은 농장운영, 숙소임대, 태양광 수입, 치즈생산, 농업학교 강의, 치즈 만드는 법 교육 등임
- 1982년에 시작하여 독일 유기농업협회에 가입하여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이를 교육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과 교육체험활동을 활성화한 경영체로 농장은 8ha 규모, 비료는 쓰지 않으며 가축분뇨를 이용함
- EU전체예산의 36%는 농업분야로, 독일도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인터넷 속도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경관보존대책이 필요, 농지의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세이며 헤센주는 실업률이 낮음

#### 나. 전라남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 마을리더 또는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음(한번 지정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됨)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 등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 유지 관리 및 확장 지원, 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주로, 광역단체, 지자체 등 재원으로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음
- 주된 수입원은 체험교육비, 숙박료, 특산물 및 가공생산물 판매 수익 등이 있음.

#### 다. 비교 분석

- 국내 농촌체험마을의 체험 메뉴얼은 농촌, 어촌, 산촌 분류만 다를뿐 계절별 작물 수확하기, 바지락 캐기, 비누 만들기, 양초 만들기 등 체험 종류가 비슷하고, 지역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마을리더에 의존하는 농어촌 실정 때문에 지도하는 강사의 실력도 균일하지 않아, 도시민 또는 아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다수 농촌체험마을의 경우, 성공사례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영비용을 자체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해 운영을 포기하는 곳도 다수 있다.

- 독일 쾰른농장주는 양, 염소, 닭, 돼지 등을 자연 상태에서 방목하고 있는 귀농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는 정부와 주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있지만, 자연 농장을 잘 운영(관리)하고 있는 그의 부단한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귀농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농장을 적극 조성하고, 각종 지원체제 개편 및 제도적인 뒷받침을 실시한다면 쾰른농장과 같은 성공적인 귀농인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쾰른농장 방문사진

### 3. 헤센주 풀다(Fulda)市 농업협회

#### 가. 독일 풀다市 농업·농촌

- 매년 2% 농가인구수 줄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가협회 농가수도 매년 2% 감소하고 있음. 1980년 5,500가구에서 현재 절반으로 줄어 듦. 헤센주 풀다 지역 젊은층 농업인구는 20% 차지, 풀다지역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으며 농사짓기가 수월함
- 토지보유세 등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증여 상속 강화
-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축산 등이 증가하나, 토지를 확보해야하는 농부 대신 외국인들이 들어와 거주하여, 이에 농업인이 건축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제도화 함
-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중요하다 여겨, 농가 체험연계로 관광수익이 증가하고 있음

#### 나. 풀다市 농업협회 활동내역

- 전문가를 채용하여 정치인에 대한 로비, 정부에 대한 집단대응, 경작비·시설 개선·환경개선·농가 생산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
  - 농가보험, 세제지원, 농민 이혼문제, 농업환경보호 이슈화, 농촌개발, EU지원책 대응 등
  - 풀다시 역시, 전라남도과 마찬가지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었으나, 규모화 및 기계화를 통해 농업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색있는 부분은 농업협회 구성의 70%는 겸업농이라고 함
  - 2,424개 농가의 30% 전업농가 중 70% 사이드로 하는 농가임(복합영농)
  - 읍면 15농가당 대표 1농가 선발 ⇒ 170여명 협회 대표 선출
  - KBV 인원 12명, LBH(세제 관련 서비스) 25명이 클라이슬러 지역내 농업인 정책에 대응, 연방의회에 정치적 건의 활동도 전개
  - 마을 단위까지 협회에서 관리하나, 정부에서의 지원은 농가로 함.
  - 농가가 정부 지원을 직접 받게 되면 소비자에게 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감. 농산물 생산비를 낮추게 되며 소비자도 싼값에 농산물 구입
  - 농가당 토지 1~2ha, 250~300유로 지원하며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비는 25% 까지 지원, 나머지 75%는 본인이 해결함
  - 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줄어들고 있어 협회의 고민이 깊음
- ※ 숲은 개발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 농업인에 대한 보험이 필요해 이에 대해 연계 역할로 농업인 산재보험도 협회를 통해 가입함.
- 환경보호법 같은 사항도 많이 발생해 협회에서 할 일이 늘어남
- 환경법 강화로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해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보여줘야 함.
- 하우스빌동 50~60명 정도가 직업 교육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농업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관계없음

#### 4. 시사점

##### 가. 전라남도 청년을 위한 농업·농촌정책 방향

- 해센주 풀다지역 젊은 층 농업인구는 20% 차지, 우리 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만 18세~39세)이 2016년말 기준 7%에 비해 3배 정도 더 높음.
- 우리도의 발달된 농·축·수산업의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한 가공·유통·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즉 2·3차 산업이 복합된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농가체험과 연계한 관광수익 증대 등이 요구됨
- 독일 농업인협회는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써 비록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으나,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단체로서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등 조직이 안정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와 농촌간 상호 협의와 노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직(협의)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귀농인의 귀농 촉진과 함께 귀농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독일도 농가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해 농업의 규모화와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농업발전의 전문적인 연구·개발, 농외소득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 유기농업 실천과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영농기반을 구입하고, '어린이 교육농장'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양, 염소, 돼지, 닭 등과 주변의 숲, 물 등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수업과 연계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음

- 특히 8ha에 달하는 큰 농장규모로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가축분뇨와 자연에서 생산되는 풀 등을 활용한 퇴비 사용, 가축 방목을 통한 동물복지 농장 운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밀식사육으로 인한 계란 살충제 파동 등에 대해 시사한 바가 컸음
- ※ 독일에서는 가축 밀식사육은 없다고 함

##### 나. 농산어촌 인식 전환 확산 및 변화된 농촌 생활 문화 형성

- 독일도 농업·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전라남도도 갖고 있는 현안이 되는 문제와 공감이 되는 실정으로
- 전라남도 대부분의 지역은 전통적인 농산어촌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젊은이와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시골에서 청년층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통로가 좁다. 귀농, 귀촌, 귀어 뿐만 아니라 농촌으로 이주민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착율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문화를 형성토록 각종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다. 어촌장벽 없애야 귀어인구 증가

- 독일은 수산업이 전체 생산량 중 2%밖에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이나 4차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였고 수산업 분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독일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
- 전남지역 어촌으로 돌아온 귀어인구는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소득이 높은 양식어장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서서 등 수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어 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이 숙제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귀어어가는 345가구 502명으로 2014년에는 280가구, 2015년 343가구 500명이었다. 이 같은 전남의 귀어 인구는 정부 공식통계 발표 이후 3년 연속 1위 기록을 보였으며, 전국 귀어인구 중 3분의 1이상의 수이다.
- 귀어인구 502명중 203명이 수도권에서 왔다. 광주에서도 89명이 전남 어촌행을 택했다. 어촌에 살지 않은 전남 사람 119명도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귀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로 귀어인 중에는 40대 이하가 절반가량 차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50대가 113명 31.6%로 가장 많았고 40대 98명, 30대 76명 순으로 젊은 층의 귀어가 많았다. 전남의

어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어장을 74%나 보유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 했다고 할 수 있다.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 52%를 점유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 귀어인들에게 편의만 제공하면 귀어를 촉진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어촌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도시민들이 어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V. 결론

- 5박 7일간 동안 독일의 청년실업정책 및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귀어 분야까지 기관방문, 현장체험 등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3월 부터 주제 선정부터 국내 선진지 견학 등 그동안 보고, 배우며, 연구한 것에 대한 국외 연수과정이었기에, 각 팀별로 방문한 기관이나 농가에 대해 질문과 관심이 많았다. 독일 문화를 체험하며, 기관방문을 통해 운영과정을 직접 볼수 있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여 우리도의 현실과 비교하여 현지인과 토론할 수 있어서 유익한 연수가 되었다.
- 연수기간동안 팀원 상호간에 보고 느낀 것을 피드백하며 지금까지의 체험, 사례, 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남은 교육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